

“지방 소멸 극복 위해 이민청 설립을”

전남·경북도, 국회서 세미나...김영록 지사, 광역비자 도입 등 역할 외국 인력 유치 필요성 주장...전남교육청, 글로벌 교육 확대 등 제안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광역비자 도입, 지방대학 지원,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실용적 전략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기초연설을 통해 법무부 산하 이민청 설립과 광역비자 전면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지방은 인구감소로 노동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을, 광역에는 인구청년이민국, 기초에는 인구청년이민과를 신설하고,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정주 대상으로 보고, 단속보다는 성실 노동자에게 가족 동반 허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계절근로자(E-8)의 100%, 고용허가제(E-9)와 유학비자(D-2)의 50%를 광역으로 이관하는 광역비자 전면 시행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방정부로의 실질·포괄적 권한 이양과 지방 메가시티 건설, 국가전략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 밀착형 산업으로 재구조화 하는 방안, 지역특화산업과 대학·기업을 연계하는 프로젝트 추진 등을 주장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혁신도시와 연계해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대학 육성, 공항 이전부지나 군 유휴지 등에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기업도시 시즌 2 추진, 지방시대 정책을 전담할 지역혁신 부총리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도 각각 기초연설을 통해 ‘글로벌 교육 확대’, ‘해외 유학생 유입’ 등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남도와 국회입법조사처, 경상북도, 전남·경북교육청이 공동으로 개최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곳곳 창업기업 제품 실증 무대 변신

창업기업제품 실증대회 5개 우수기업 선발...다음달부터 진행

광주시가 창업기업의 혁신 기술 실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1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제2회 창업기업제품 실증 경진대회'를 열고, 대상에 '버스정류장 탑승자 유무 표시장치' 제품을 선보인 (주)아이테크를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주)아이테크는 실증지원금 1억1000만원과 함께 추가 실증비용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최우수상은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인명구조함 자동관리 시스템'을 선보인 (주)휴텍산업이, '추락방지 하수맨홀'의 (주)호남스마트코리아가 차지했다.

우수상에는 '플라즈마 기반의 사물인터넷(IoT)형 하수관로 악취제거장치'의 (주)삼도환경이, '태양광 집열 시스템'의 (주)금철이노베이션이 선정됐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외부전문가와 50여명의 시민평가단이 심사에 참여, 모두 5개의 우수기업을 가려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10월 창업기업제품 실증경진대회 공모에 지원한 총 62개 기업 가운데 1차 서면심사, 2차 대면평가를 통해 8개 기업을 선정했다.

8개 기업은 전문가 심사와 원가산출평가 등을 통해 실증지원금을 확정하고,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추가 지원금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창업기업의 제품들은 12월부터 3개월 동안 광주 곳곳에서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8월 우수기술 제품을 보유한 창업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제품 실증 경진대회'를 개최해 현재 10개 기업들이 광주 곳곳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서구 18개 통장단 화합 한마당 광주시 서구 18개동 통장단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인 '2023 통장 명랑운동회'가 22일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렸다.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한 각 동의 통장들이 친절도시 선언식을 하며 화합을 다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올 자연재해 농가 1160억 지원

4월 이상저온·5~7월 호우·8월 태풍...3만2000ha 피해

전남도가 올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복구비 518억원과 농작물 재해보험금 642억원을 포함해 모두 1160억원을 지원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4월 이상저온으로 과수피해, 5~7월 집중호우와 긴 장마로 양파와 보리 등의 피해, 8월 태풍으로 벼 침수 등 5회에 걸쳐 발생한 재해로 농작물 3만2000여ha가 피해를 입었다.

특히 6~7월 장마 기간 전남지역에선 1개월여 동안 649mm의 많은 비가 내려 벼와 논콩 침수 등 농작물 1만8440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전남도는 신속한 피해조사와 주생계 수단 사전확인 절차를 거쳐 피해를 입은 2만7000농가(3만2000ha)

)에 농약대와 생계지원비 등 재해복구비 518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2만7000농가 중 재해보험에 가입한 1만9000농가에는 양파, 마늘, 보리 등 동계작물과 배, 매실 등 과수 저온 피해 등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금 642억원도 모두 지급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구온난화로 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면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도록 내재해형 시설(설비) 설치와 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조합보험 등 농업정책보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f@kwangju.co.kr

지방정가 라온지

“발달장애인 치료 위한 거점병원 지정 시급”

김호진 전남도의원 대책 요구

김호진(민주·나주 1) 전남도의원 의원은 전남 지역 발달장애인들의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제 376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보건의료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근 5년 간 도내 발달장애인이 1만 3775명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들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다양한 치료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속 거점병원 지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달장애인의 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법’을 개정, 특별시·광역

시·도 등에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토록 했지만 전남을 비롯해 전국 9개 시·도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은 지난해부터 전남도에 요청하고 있지만 여태껏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라며 “중합병원급 의료기관 중 지정이 힘들다면 거점병원 지정 기준 완화나 예외 규정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도의원들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이전’ 촉구

건의안 발의...다음달 7일 본회의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무안국제공항으로 민간·군공항의 통합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그동안 지역구 입장 등을 이유로 의회 차원의 결의안 마련에 소극적이었지만 전남 발전을 위한 현안 추진을 위해 단일화된 입장을 마련하고 힘을 실어준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의안 발의에 나섰다.

2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김주용 의원(민주·비례)이 대표

발의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해당 건의안은 서남권 발전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함께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은 정부·국회·광주시에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대로 민간공항의 조속한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 ▲군공항 이전 지역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대책 마련 ▲민간 공항과 군공

항 통합 이전 논의를 위한 공론의 장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는 광주시의 합평에 대한 군공항 유치 바람에도, 합평을 지역구로 둔 모정환(민주·합평) 의원이 동참해 주목을 받았다.

김주용 의원은 “광주시는 지난 2018년 8월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기로 약속하고도 파기했다”면서 “무안국제공항에 국내선과 군공항이 더해지면 서남권 발전 동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의안은 오는 12월 7일 제 37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관 기관에 발송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수 목 장

또 다른 만남,
한 그루 나무가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장묘 | 수목장·가족장 | 24시간 연중무휴 | ☎ 무료안치: 062-449-4446